

2023 KAISTian Failure Story 수상작 연재

CAF뉴스레터는 2023년 실패연구소 에세이 공모전
‘KAISTian Failure Story’ 수상작을 연재합니다.
이번 호에 실린 에세이는 ‘극복상’을 수상한 두 개의
작품입니다.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도 그 속에서 삶의 교훈을
찾는 KAISTian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에세이공모전 수상작 연재

KAISTian story



실패와 함께 걷기

이윤서 (KAIST 전자및전기공학부)

“말을 참 잘하는 아이”

이 말은 한때 나를 가장 잘 설명하는 수식어였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 교내, 교외 스피치 대회는 기회가 닿는 대로 참여하여 항상 좋은 실적을 거두었다.

그랬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 말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어버렸다. 발단은 초등학교 5학년 학급 임원 선거였다. 활발한 성격으로 반의 임원을 꾸준히 맡아 왔던 나는 당시에 당연히 임원진을 자처했다. 그러나 한 친구의 주동으로 나를 동료라는 동등한 위치가 아닌 독재자인 것처럼 꾸며낸 이야기가 친구들 사이에 돌기 시작했다. 게다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나에 대한 추악한 소문까지 퍼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학급 임원 선거 당일 나는 표를 거의 받지 못했고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그 후로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철저히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제서야 나의 행실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착한 아이가 되고 싶다는 욕심에 선생님이 기대하시는 반장으로서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는 것에만 주력했으며, 이는 다른 친구들이 보기엔 재수없는 아이로 평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았다. 1~2년간 지속되는 그 오묘한 분위기는 어린 나에겐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 뇌리에 박음질을 해댔다. 모든 것이 자신감을 넘어서 자만과 오만에서 비롯된 일의 결과라 판단되는 순간부터 스스로를 한없이 왜소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스스로의 행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의심하도록 프로그래밍한 결과, 최대한 눈에 튀지 않는 아이가 되는데 성공한 듯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팀 대회와 같은 특정 역할을 맡게 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선생님들께 떠밀려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그렇게 잘했던 발표가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과학 탐구 발표 대회의 피드백을 받기 위해 단상에 서는 순간 머리가 백지장이 되었고 입은 움직이지 않았다.



“너는 말을 못하잖아!” 여러 차례 발표 대회에서 나를 제외시키자는 동료들의 대화를 들으면서도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심장에서 자괴감으로 가득 채워진 뜨겁고 검은 액체가 왈칵 쏟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 후로 다시 ‘말 잘하는 아이’라는 타이틀을 되찾고자 노력했다. 스피치 관련 책들을 사서 읽고, 강연을 들으며 요약, 정리했으며, 연기 학원에 등록하여 대본 쓰기, 읽기 연습도 해보았고 발음 교정까지 받았다. 그러나 그러한 충격요법으로는 180도 돌려놓은 사고를 다시 교정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노력을 해도 제자리 걸음이라는 현실은 스스로를 더 깊은 구렁이로 몰아넣었다. 어느 누가 봐도 어색하고 황설수설하는 모습으로 끝나버린 고교 첫 발표 대회 후 단상에서 내려오면서 팀원들께 피해를 끼쳤다는 미안함과 아직도 이런 내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는 울분으로 펄펄 울었던 기억이 있다. 훨씬 더 큰 아픔을 이겨내고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분들 혹은 그런 사례들을 접하면서 왜 나만 상처가 이렇게 크게 작용하는 것일까, 겨우 초등학교 시절 생겼던 작은 트라우마 하나 못 이겨내는 나약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자 나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하지만 삶은 나라는 인간을 성장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었던 것 같다. 피치 못하게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마주하게 함으로써, 계속 부딪혀보는 것 이외엔 다른 길을 내어 주지 않았다. 특히 촉박함은 내가 과거의 미련에 허우적거리길 내버려두지 않았다. 그렇게 황설수설, 더듬더듬 온몸을 떨어가며 말하고 있는 내 모습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고등학교 전람회, R&E, ISEF 대회를 참여하며, 대학교 구술 면접 때에도 알고 있는 용어들의



조합을 내뱉었으며 아르바이트, 멘토링 지원 면접을 볼 때도 그랬다. 스피치에 있어서의 실패를 직면하는 과정은 정말 나를 한없이 작게 만들었지만, 결과가 어떻든 간에 황설수설하는 모습 속에서도 나의 진심만은 꼭 보여주겠다는 다짐으로 계속 걸어갔고, 신기하게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나의 모습을 감정을 배제한 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거둬진 부딪힘 속에서 얻었던 소중한 책,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에서 모리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감정들에 온전히 자신을 던지면, 그래서 스스로 그 안에 빠져들도록 내버려두면, 그때는 온전하게 그 감정을 경험할 수 있네. 그럼 그때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좋아. 난 지금껏 그 감정을 충분히 경험 했어. 이젠 그 감정을 너무도 잘 알아. 그럼 이젠 잠시 그 감정에서 벗어나야 필요가 있겠군.'"* 나는 이미 '스피치'로 5년간 충분히 고통스러웠다. 이젠 그 감정에서 벗어나야 할 시기였다.

우선 실패를 경험하면, 어쩔 수 없이 실패의 쓰라림을 맛보게 된다. 하지만 쓰라림을 충분히 겪고 난 뒤에는 슬픔이라는 감정을 나와 분리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핵심은 실패를 하나의 관찰 대상처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제자리에 서서 실패를 바라보고만 있는 것은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실패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 실패와 '함께 걸어가겠다'는 마음가짐은 제자리에 서서 바라보고만 있는 것과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 아직도 나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서 말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미친듯이 두근거리며 손, 발, 목소리 모두 떨리는 것이 느껴진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관찰자의 입장에서 분석해 본 뒤 다시 묵묵히 걸어간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실패와 함께 걷기를 선택한 순간부터 조금씩 자신감에 찬 언어들을 뱉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다.